

불교환경연대 후원의 밤 개최

지난 10년 미래 10년 준비하는 작업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후원의 밤 행사를 10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개최했다.



불교환경연대의 첫 후원의 밤 행사가 300여 대중의 축하와 격려로 여법하게 봉행됐다.

불교환경연대는 조직안정화 및 인재발사로 임지를 굳히기 위해 △불교 NGO센터 건립 △불교환경문화연구소 설립 △불교환경 인재발사의 3대 비전을 선포하고 환경보살로서의 서원이 사회로 회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행사는 성전 스님의 사회로,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현각 스님의 개회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의 인사말, 동국대 이사장 정연 스님의 격려사,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의 축사로 진행됐다.

보선 스님은 “생령존엄이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한 불교환경연대는 불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여를 했다”며 “불교환경연대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지금까지의

발자취가 앞으로 걸어갈 100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반대하는 운동은 끝이 가서는 지기 마련이다”며 “앞으로 환경운동은 반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토를 지키는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마케팅 해서 청정국토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생명과 평화가 바람 앞에 흔들리고 있을 때 불교환경연대의 외침이 자연과 내가 풀이 아님을 깨우쳐 줬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화계사 합창단과 관음무용단, 가수 안지환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한편, 이날 모금된 후원금은 3400만원으로 총 9158만원이 집계됐다.

박선주 기자

케이블카 추진 공원법 반대

케이블카반대위 12일 조계사 앞서 기자회견



케이블카반대위는 10월 12일 조계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자연을 그대로 두라”고 주장했다.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반대위)’는 10월 12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케이블카 추진 자연공원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리산(노고단, 천왕봉, 반야봉), 설악산(대청봉), 북한산(백운대) 5개의 봉우리에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정부와 환경부에 반대사를 피력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재철 녹색연합 사회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신연지 진보신당 위원장, 박그림 설악녹색연합대표, 유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의 발언과 기자회견문을 낭독, 자연공원법 개정반대 카드섹션과 조계사와 종각 광화문 거리 행진으로 이어졌다.

케이블카반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부가 자연보존지구에서 케이블카 건설을 부추기를 자연공원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이명박 정부는 국립공원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개발’ 정책을 포기할 것 △민족의 유산인 국립공원을 그대로 놔두라고 주장했다.

지성의 팀장은 “환경부는 이미 올해 5월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조계종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10월 국무회

의 통과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전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며 기자회견의 의의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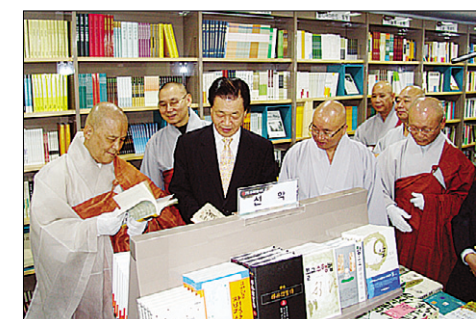
유주옥 사무처장은 “이 위기는 계절에도 현재 지리산 노고단은 시민사회가, 천왕봉은 산악인, 반야봉은 불교연대를 비롯한 사람 스님들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국 사무처장은 “내장산 케이블카는 천연기념물 91호인 굴거리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개발’ 정책을 포기할 것 △민족의 유산인 국립공원을 그대로 놔두라고 말했다. 다섯 개의 봉우리에 12일부터 시작된 1인 시위는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를 중단할 때까지 이어진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불교전문서점 15일 개점

템플스테이정보센터 지하에 불서 2만권 갖춰



불교전문서점 개점식이 끝난 후 불서를 살펴보는 지관 스님(왼쪽)과 김충용 총무국장 등 내빈들.

2004년 문을 닫은 ‘책방 여시아문’의 뒤를 이어, 2만 여권의 불서와 음반 등을 갖춘 대형(360여㎡) 불교전문서점이 조계사 맞은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지하 1층에 들어섰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0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불교출판문화협회장 지홍 스님을 비롯한 불교출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불교전문서점’ 개점식을 개최했다.

개점식에서 지관 스님은 “불교 포교는 경전과 스님, 불상이 갖춰져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오늘 서점 개점을 계기로 교학을 장려하고 문서포교를 활성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홍 스님은 “출판문화사업은 시장의 원리가 아닌 문화포교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종단의

배려로 출판계의 숙원사업이 이뤄진만큼 양질의 불서를 출판하겠다”고 말했다.

종훈 스님은 “항후 서점 운영과 관련한 조계종 총령에 규정을 만들어 안정적 운영체계를 갖추겠다”며 “홈페이지 구축,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불자들이 불서를 많이 읽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교출판계는 대형 불서점의 개점으로 불서 출판 및 유통의 활성화로 포교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며 반기고 있다.

김성우 기자

서불대 이사 전원 임원 승인 취소

교과부 결정... 지옥 스님 측 법적 대응 검토

장기간 학내 분규중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이사장 지옥, 이하 서불대) 이사 전원이 해임돼 서불대 사태가 새국면을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 14일 파행 운영된 학사행정에 대한 책임과 공익적 이유 등을 들어 서불대 이사회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교과부는 서불대 이사장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서불대 이사회는 위법 부당한 교원 인사처분과 학사과정 등 현저한 학교운영의 장애를 야기시켰고, 법률로 엄격히 금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특히 교수, 학생 등 학내 구성원과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해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공익성 필요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0조에 의거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불대 이사회의 전원 해임으로 교과부의 관선이사 파견도 불가피해졌다. 관선이사는 서불대 법인운 영을 위해 최소 4인이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8월 대법원으로부터 교과부의 ‘이사 승인 취소 처분 철회’를 판결 받은 서불대 설립자 덕해 스님의 이사회 복귀까지 예정돼 서불대가 설립 초심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지옥 스님 측은 “교과부의 굴욕적인 계고 조치도 이행해 왔으나 이사 전원 해임 조치는 유감”이라며 “이번 이사회 전원 해임 조치는 언젠가 바로 잡힐 것”이라 밝히며, 교과부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조동섭 기자

법륜 스님 “대북지원 확대 절실” 호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NGO 포럼서 주장

대북 인권운동과 평화통일에 앞장선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이 북한의 대홍년과 대기근을 우려하며 대북지원을 촉구했다.

법륜 스님은 10월 13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개최한 NGO 포럼 ‘대북 지원과 인권’에서 “올해 북한지역은 냉해와 가뭄, 홍수가 겹쳐 인도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지원 확대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법륜 스님은 “지난해부터 농촌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3년간은 매년 100만톤 이상씩 식량을 지원하고, 비로 지원도 병행해야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중국에 정착한 5만여 탈북민민의

인권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님은 “식량난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간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중국 고용주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며 “남한은 중국과 외교관계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는 데, 이는 운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동족이자 이웃으로서의 의무’라고 주장한 스님은 “우리는 쌀이 남아돌아 창고 보관료만 연간 3000억원을 쓰고 4년 이상 묵은 쌀은 동물 사료로 방출하는 마당에 굶어죽는 북한 주민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이 남한의 관찰권에 있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고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남한의 개입 근거가 되지않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북중동맹을 통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명분으로 개입하는데 우리는 개입할 명분조차 없게 된다”고 말했다.

300조에 이르는 한 해 예산 중 1%(3조원)만 있어도 북한 식량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 법륜 스님은 “북한지역도 우리 영토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무관심했던 것은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주 기자

수타사에 공작산 생태숲 조성

천년고찰 수타사주지 삼지, 강원도 유형문화재 17호)에 대규모 생태숲이 조성돼 인기를 끌고 있다.

강원도 홍천군과 수타사는 공작산 주변의 자생식물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산림생태계 연구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공작산 생태숲’을 조성했다.

홍천군 동면 덕치리 산1번지 163ha의 일대에 조성된 생태숲은 교육관 및 전시시설, 산소길 등 산로와 2700여종의 식물군락이 피는 ‘역사문화 생태숲’ ‘유전자원보존 숲’ ‘교육체험 생태숲’으로 구성됐다.

박선주 기자

2009빛고을불교아카데미

여래의 使者를 만나다-한국불교 포교의 신화를 일구는 스님들

| | |
|---|----------------------------------|
| <p>일시: 2009년 10월 27(화)~12월1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p> <p>장소: 광주 동구 KT문화관 대강당</p> | <p>공동주최: 광주불교서암연합회 불교TV 현대불교</p> |
|---|----------------------------------|

| | | |
|----------|-------------------|------------------|
| 1강 10/27 | 신심과 원력의 길 | 해인스님(제주 약천사 회주) |
| 2강 11/3 |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 | 정락스님(前조계종 포교원장) |
| 3강 11/10 | 도심 속 천년사찰을 깨우다 | 명진스님(봉은사 주지) |
| 4강 11/17 | 아름다운 불광공동체 | 지홍스님(불광사 회주) |
| 5강 11/24 | 수행,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다 |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
| 6강 12/1 | 시심(詩心)으로 세상을 깨우다 | 청화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

기호 1번

“ 국민과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종단을 만들겠습니다 ”

종단의 구태한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선언적인 주장 보다 종단의 백년대계가 담긴 주요한 정책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지도력’이 필요한 때이며,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단운영에 반영하는 ‘개방적인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또한 종단의 정통성을 확립한 정화세대의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개혁세대의 합리적인 식견을 모아내는 ‘세대통합의 지도력’을 통해 한국불교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수 계

1972. 10 해인사에서 지관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74. 4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주요 이력

| | | |
|------------------------|-----------------------|--------------------------------|
| 1992. 9제10대 중앙총회 의원 | 1999. 11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 2005. 11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
| 1996. 11제11대 중앙총회 사무처장 | 2000. 2제12대 중앙총회 의원 | 2006. 11제14대 중앙총회 의장 |
| 1997. 12과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2002. 12 제13대 중앙총회 의원 | 2004. 2 ~ 현재,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

☎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후보 자승스님